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November 2025 Issue | Vol. 80

SPECIAL POINTS OF INTEREST

- 필리핀의 GDP 성장률, 4% 부근에 뮤일 것으로 전망 — page 1
- 필리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디지털 기술 수요 최하위 — page 2-3
- 올해 전자제품 수출 5.7% 성장 전망 — page 3
- PCCI, BIR 세무조사 중단 환영 — page 4
- 투자 유입, 점점 커지는 역풍에 직면 - BMI — page 4-6
- 한국, 농기계 조립 공장 설립 지원 — page 6
- [Nov 27, 2025] 제20회 JFC 네트워킹 나이트 — page 6
- [Post Event Article and Photo Highlights] 2025 KCCP 크리스마스 파티 — page 7-9

필리핀의 GDP 성장률, 4% 부근에 뮤일 것으로 전망

November 26, 2025 | Ian Nicolas P. Cigural | Philippine Daily Inquirer

마닐라, 필리핀 – 이미 기업 신뢰를 약화시키고 행정부 개편을 축발한 확산되는 부패 스캔들은 향후 2~3분기 동안 경제 성장을 4%대에 뮤어들 위협이 있어, 마르코스 대통령이 스스로 설정한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는 데 복잡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



Photo by TED ALJIBE / AFP

도이체방크의 이코노미스트인 준지에 황(Junjie Huang)은 고객 노트에서, 거버넌스 위기가 경제 활동을 짓누르고 향후 분기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 이하로 끌어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평균 성장률이 약 4.7%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5년 상반기의 높은 기저효과와 연말로 갈수록 약해지는 모멘텀의 결합으로 인해 2026년 성장률이 5.1%에 그칠 수 있으며, 이는 이전 전망치인 5.7%에서 하향 조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전망을 종합하면, 경제는 마르코스 대통령이 2025년을 위해 제시한 5.5~6.5% 목표뿐 아니라, 2028년 임기 종료까지 설정한 연 6~7% 성장 목표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부패 스캔들은 국내 투자심리에 명백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사태가 계속 전개되는 만큼 향후 몇 개 분기 동안 성장 전망을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황은 적었다.

그는 “공직자들 사이에서 위험 회피 성향이 높아지면서, 2026년 예산 지연 신호가 없고 대통령이 미사용 인프라 자금을 재배정하겠다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1년 동안 집행이 고르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4%에 그쳤다는 자료가 발표되면서—이는 4년 넘게 이어진 가장 낮은 성장 속도였다—마르코스 대통령의 경제팀은 올해 정부 성장 목표의 하단에 도달하는 것조차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금리 인하

중앙은행은 신속히 대응해, 통화정책위원회가 10월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여 4.75%로 조정했다.

방코 센트랄 응 필리피나스(BSP) 총재 엘리 레몰로나 주니어는 12월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경제가 경착륙 위험에 빠지고 있다는 우려를 불러올 수 있는 공격적 완화는 배제했다.

이미 정책 입안자들은, 반부패 단속으로 인해 기업 신뢰가 약화되고 공공 사업이 지연되며 마르코스 행정부의 내각 구성원들까지 낙마하는 등 어려운 경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공식 성장 목표를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도이체방크의 황은 재정 정책과 성장률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BSP가 향후 두 차례 연속 회의에서 각각 25bp씩 추가 완화를 단행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 깊은 마이너스 생산갭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추가 금리 인하의 확률도 커졌다고 덧붙였다.

황은 “BSP의 현재 정책 기조는 여전히 긴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금리가 약 3%로 지역 평균인 1.5~2%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BSP가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둘 것”이라고 밝혔다.

<https://business.inquirer.net/559998/ph-growth-projected-to-stay-stuck-near-4/>

필리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디지털 기술 수요 최하위

November 25, 2025 | Justine Xyrah Garcia | BusinessMirror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역에서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월요일 필리핀 고용주들이 동일 직종에서 지역 동료들에 비해 여전히 가장 적은 디지털 기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곧 발표될 ADB 연구의 초기 결과에 따르면, 필리핀은 디지털 기술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그 뒤를 말레이시아와 인도가 이었다.

이 점수는 구인 공고의 디지털 집약도를 측정한 것으로, 디지털 기술이 전혀 필요 없는 직무는 0점, 고급 역량을 요구하는 직무는 1점으로 평가된다. 연구 대상 국가는 호주, 인도,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 여섯 개 경제권이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기술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일한 직종에서 필리핀 기업들이 요구하는 수준보다 약 17% 높은 디지털 역량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역에서 ADB는 디지털 역량이 고용 가능성을 위한 기본 요건이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현재 약 45%의 구인 공고가 이메일 사용, 오피스 생산성 도구 활용, 디지털 문서 작성 등 최소한의 기본 디지털 기술을 요구하고 있다.

약 30%의 구인 공고는 온라인 콘텐츠 관리나 기초 코딩과 같은 중급 수준의 디지털 기술을 요구하며, 10% 이상은 프로그래밍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등 고급 디지털 기술을 찾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도구 활용 능력을 포함한 AI 역량에 대한 수요는 2022년 생성형 AI가 등장한 이후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고용주들이 기술을 일상 업무에 얼마나 빠르게 통합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ADB 이코노미스트 실비아 가르시아 만디코는 국가 간 디지털 기술 격차가 필리핀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디지털 시스템 채택 속도가 느린 것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회계사와 어소시에이트를 비교해 보면, 필리핀의 고용주들은 디지털 기술을 덜 언급합니다. 이는 기업 내 디지털 시스템 확산 속도가 느리다는 점을 반영하며, 특히 중소기업에서 더욱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라고 만디코는 한 포럼에서 설명했다.

그녀는 또한 이메일 활용 능력, 데이터 분석, 기초 프로그래밍, 중급 소프트웨어 사용 등 디지털 기술 공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기업들이 구인 공고에서 이러한 역량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주가 평균적으로 직무 지원자들이 갖춘 디지털 기술 수준이 낮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일부 디지털 기술 요구를 차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ADB 연구는 또한 디지털 기술을 갖춘 근로자에게 명확한 임금 프리미엄이 존재함을 발견했으며, 기본 기술의 경우 약 5%, 고급 프로그래밍이나 IT 관련 역량의 경우 최대 15%에 달했다.

조직은 이러한 임금 프리미엄이 디지털 인재가 제한적인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에서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호주는 디지털 집약적 노동시장이 비교적 발달해 있어 프리미엄이 가장 낮았다.

“디지털 인프라 투자와 기초 교육”

연구 결과는 디지털 기술 수요가 낮은 경제권도 여전히 따라잡을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ADB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총재 알버트 박은 필리핀과 같은 국가들이 디지털 인프라 개선과 기초 교육 강화에 두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총재는 필리핀이 여전히 학습 성취도가 지속적으로 낮으며, 이는 디지털 역량 습득의 근본적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필리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디지털 기술 수요 최하위

[Cont. from page 2]

“이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을 더 저렴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기술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제에서 근로자들이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한 디지털 기반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총재는 “개발도상국들은 기술 변화의 방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에 투자하거나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벤처 또는 기술을 장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덧붙였다.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11/25/phl-ranks-lowest-in-digital-skills-demand-across-ap/>

올해 전자제품 수출 5.7% 성장 전망

November 26, 2025 | Louella Desiderio | The Philippine Star

마닐라, 필리핀 — 반도체 및 전자업체들의 대표 단체에 따르면, 올해 필리핀의 전자제품 수출은 신기술과 통신 제품 수요에 힘입어 전년 대비 5~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 반도체 및 전자산업재단(SEIPI) 회장 댄 라치카(Dan Lachica)는 기자들에게, 최근 이사회 회의를 열고 올해 성장률을 5~7%로 새롭게 전망했다고 밝혔다.

기준에는 SEIPI가 2025년 수출 성장률을 제자리걸음(flat growth)으로 예상했었다.

지난해 필리핀의 전자제품 수출은 2023년 456억 5천만 달러에서 42억 7천 4백만 달러로 6% 감소했다.

필리핀 통계청(PSA) 자료에 따르면, 올해 9개월 동안 전자제품 수출은 지난해 306억 달러에서 335억 달러로 9.5% 증가했다.

내년을 위해, 라치카 회장은 그룹이 전자제품 수출이 5%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이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통신 제품”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필리핀이 고급 혹은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그는 여전히 새로운 기술에 필요한 다른 부품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필리핀의 반도체 수출은 미국이 필리핀산 다른 제품에 부과하는 19% 상호 관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미국 관세가 “우리가 여전히 무관세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 관세 정책 변화가 필리핀의 전자제품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만약 그들이 무관세를 제거하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반도체 수입에 최대 300%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미국 내에서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에는 예외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급 반도체 생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라치카 회장은 국가가 개념 증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SEIPI가 필리핀 내에서 원재료 실리콘 웨이퍼를 집적회로나 칩으로 전환하는 실험 규모 웨이퍼 제조 시설(lab-scale wafer fabrication facility)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다.

라치카 회장은 SEIPI가 웨이퍼 제조 시설 설립 제안을 과학기술부(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11/26/2489830/electronic-exports-may-grow-5-7-percent-year>



Semiconductor and Electronics Industries in the Philippines Foundation Inc. (SEIPI) president Dan Lachica told reporters that the group recently conducted its board meeting and approved a new growth projection of five to seven percent for this year.

STAR / File

PCCI, BIR 세무조사 중단 환영

November 26, 2025 | Logan Kal-El M. Zapanta | Philippine Daily Inquirer



마닐라, 필리핀 — 필리핀 상공회의소(PCCI), 필리핀 최대 규모의 경제단체는 내국세청(BIR)의 모든 현장 조사 및 관련 운영을 중단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화요일 성명에서 PCCI는 월요일 재무부(DOF)가 발표한 이번 일시적 중단이 중소기업들이 세무 조사 대응 대신 연말 판매와 연말 계획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PCCI는 화요일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기업, 특히 마이크로·소규모·중견기업(MSME)에 중요한 즉각적 지원을 제공하며, BIR 감사라는 추가 압박 없이 전략적 계획, 재고 관리, 연말 시즌 판매 등 연말 우선 과제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운영상 숨통을 열어준다”고 밝혔다.

심각한 우려

이번 중단 조치는 상원이 제기한 우려에 따른 것이다. 상원에서는 납세자의 세금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BIR에 권한을 부여하는 ‘권한서(Letter of Authority, LOA)’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단 조치로 LOA 및 미션 오더(Mission Order, MO)의 발급, 작성, 인쇄, 서명이 모두 중단되며, 검토 기간 동안 감사 관련 집행이 사실상 정지된다. 다만 법적으로 필요한 경우나 긴급한 사건만 진행될 수 있다.

PCCI는 새로 임명된 재무장관 프레데릭 고(Frederick Go)의 “단호한 조치”와 새로운 BIR 국장 찰리 멘도사(Charlie Mendoza) 하에서의 “신속한 시행”을 높이 평가했다.

멘도사에 따르면, BIR은 현재 세무 감사 프로토콜을 검토하고 안전장치를 권고하기 위해 “LOA 및 MO의 무결성과 감사 개혁”을 위한 기술작업그룹(TWG)을 구성하기도 했다.

약 3만 개의 민간기업, 협회, 상공회의소 회원을 보유한 PCCI는 이번 조치가 감사 시스템 개선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밝혔다.

PCCI는 “포괄적인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TWG를 구성한 것은 감사 과정의 명확성, 일관성, 적절한 감독에 대한 오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조치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내부 통제

PCCI는 이어 “이번 조치를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며, 감사 시스템이 확립된 규칙과 적법 절차의 원칙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개혁 과정 전반에 걸쳐 재무부(DOF) 및 BIR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PCCI는 “우리의 공동 목표는 세금 납부를 성실히 이행하는 납세자를 보호하고, 효율적이고 공정한 세수 징수를 지원하며, 책임성, 청렴성, 투명성 기준을 준수하는 세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INQ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560001/pcci-welcomes-suspension-of-birs-tax-audit-operations>

투자 유입, 점점 커지는 역풍에 직면 – BMI

November 26, 2025 | Niña Myka Pauline Arceo | The Manila Times

피치 그룹(Fitch Group) 산하 기관은 부패 스캔들이 거시경제 및 무역 불확실성에서 비롯되는 압박에 더해지면서, 2026년까지 해외 투자가 침체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 유입, 점점 커지는 역풍에 직면 - BMI

[Cont. from page 4]

BMI는 월요일 발표에서, 올해 2분기 필리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1.3%로 떨어진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점점 커지는 역풍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BMI는 4~6월 수준이 팬데믹 이전 평균인 2.5%보다 훨씬 낮았으며, 7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홍수 방지 사업 문제를 제기한 후 8월에는 40.5%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부페 스캔들은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 우려를 가중시켰으며”, 자금 유입은 “앞으로도 추가 악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BMI는 밝혔다.

최근 방코 센트랄 응 필리피나스(BSP) 자료에 따르면, 8월 순 유입액은 4억 9,4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8억 3,000만 달러에서 급락했다. 올해 들어 순 FDI 유입은 67억 달러에서 52억 달러로 22.5% 감소했다.

BMI는 또한 스캔들로 인해 폐소화가 압박을 받았으며, 5월 27일 2025년 최고치 이후 11월 20일 기준 달러 대비 6.6% 하락한 P58.90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부분의 아시아 통화가 상승한 것과 대조된다.

BSP가 다음 달 기준금리를 추가로 25bp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 추가 약세가 예상된다고 BMI는 덧붙였다.

이로 인해 미국과의 금리 차이는 50bp로 좁혀져 필리핀 자산의 매력이 감소할 전망이다.

BMI는 폐소화가 2025년 말에는 달러당 P59.0, 2026년 말에는 P59.50까지 추가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필리핀의 무역수지는 혜택을 보겠지만, 전 세계와의 거래를 측정하는 경상수지 개선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BMI는 올해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3.4%, 2026년에는 3.2%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2015~2019년 팬데믹 이전 평균인 0.4%보다 훨씬 큰 수준이라고 밝혔다.

계절 조정 기준으로, 강한 상품 수출 덕분에 2025년 상반기 적자는 GDP의 3.1%로 완화되었다. 상품 수출은 올해 3분기까지 전년 대비 평균 13.1% 성장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높은 관세가 3분기 해외 수출에 부담을 주기 시작했으며, 미국으로의 수출은 전년 대비 0.3% 감소했다.

11월 14일 특정 농산품에 대한 면제 조치로 필리핀 수출 10억 달러 이상이 면제되겠지만, BMI는 상품 무역에서 “큰 폭의 개선 여지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BMI는 미국이 필리핀 수출품에 부과한 실효 관세가 8월 19%의 ‘상호 관세’ 부과 이후 지난해 1.3%에서 16.8%로 급등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비스 수지는 여전히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어려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BMI는 필리핀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 산업이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5%를 차지하고 GDP의 약 6.5%를 차지하지만, “세계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송금액 역시 미국의 엄격한 이민 정책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1% 세금으로 인해 상당한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BMI는 “미국은 송금액 최대 원천지이며 전체 유입의 40%를 차지하므로, 2026년 송금액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상수지 전망에 대한 위험은 “균형적”이지만, 관세 불확실성이 적자 폭을 확대할 수 있다.

BMI는 19% 관세를 줄이기 위한 성공적인 양자 협상이 국가의 입지를 개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2026년 BSP 목표치인 2.9%에 가까운 수준으로 적자를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 농기계 조립 공장 설립 지원

November 24, 2025 | Alden Monzon | The Philippine Star



Photo shows farmers harvesting their plot of land in Rosario, La Union on October 4, 2024.

STAR / Andy Zapata

마닐라, 필리핀 — 필리핀과 한국은 지방 제조업을 강화하고 농민들이 첨단 장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카바나투안시(Cabanatuan City)에 농기계 조립 시설 설립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필리핀 수확 후 기술 개발 및 기계화 센터(PHiLMech)는 성명에서, 이달 초 필리핀 관계자들과 한국 농림축산식품부(MAFRA) 간의 회의가 이번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고 밝혔다.

PHiLMech는 “회의에서는 제안된 프로젝트 운영, 인프라 요구 사항, 한국 기업의 잠재적 투자에 대한 논의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단은 관개 시설 제공과 토지 복원 사업 등 국가 차원의 광범위한 필요와 연계하여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기회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MAFRA 측 대표들은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필리핀 측은 프로젝트를 관개 지원과 토지 복원 등 국가 차원의 광범위한 필요와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PHiLMech의 전무이사 렉스 빙아빙 알빈디아(Rex Bingabing Alvindia)는 현지 조립이 애프터서비스를 개선하고, 예비 부품 접근성을 넓히며, 농민들에게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하며 기관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기술 훈련 파트너십과 기계화 연구소 설립을 포함한 장기적인 역량 강화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11/24/2489333/south-korea-help-put-assembly-plant-farm-machinery>

THE JOINT FOREIGN
CHAMBERS OF COMMERCE
AMCHAM • CANCHAM • ECCP • JCCPI
• KCCP • PAMURI

AMCHAM PHILIPPINES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of the Philippines

CANCHAM

ORGANISED BY

eCCP
EUROPEAN CHAMBER OF COMMERCE
OF THE PHILIPPINES

JCCPI
The Japanes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f the Philippines Inc.

KCCP
KOREAN CHAMBER OF COMMERCE
IN THE PHILIPPINES INC.



20TH JFC NETWORKING NIGHT

27 November 2025 • 06:00 PM - 09:00 PM • The Bellevue Manila

JFC Members: Php 2,500 • Non-Members: Php 3,000



AGS
Records Management
Worldwide Movers
Relocation

ASTORIA

Canon

Centre
Médical
Internationale

Coca-Cola
Philippines

CROWN
WORLDWIDE GROUP

ELUGREE

ENVIR CYCLE

MAKATI MEDICAL CENTER

Marubeni

NORD ANGLIA
INTERNATIONAL SCHOOL
MANILA

OCAMPO MANALO
VALOREZ & LIMA

Office Retirement Plan
SOCIETY FOR
EMPLOYERS

PIA
RETAIL
ASSOCIATES

1番搾り
KIRIN ICHEBAN

Veratech

[Post Event Article] 2025 KCCP 크리스마스 파티

한국상공회의소 필리핀지부(KCCP)는 2025년 11월 24일 마카티 시 살세도 빌리지의 마카티 스포츠 클럽 아얄라 볼룸에서 2025년 크리스마스 파티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및 비한국 기업, 협력 기관, 더 넓은 비즈니스 커뮤니티 회원 등 130명 이상의 참석자가 모였다.

행사는 이 상화 주필리핀 한국대사(H.E. Ambassador Lee Sang-hwa)와 필리핀 경제구역청(PEZA) 정책기획 부국장 아니델 조이 M. 알구소(Ms. Anidelle Joy M. Alguoso)를 비롯한 여러 귀빈과 VIP가 함께하며 빛을 더했다. 여기에 필리핀 한국 경제위원회(FKEC) 회장인 파비안 K. 델로스 산토스(Atty. Fabian K. Delos Santos)와 KCCP 명예회장인 이관수, 장재정, 박일경, 이호익 등이 참석해 한국과 필리핀 간 지속적인 협력과 우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행사 프로그램 중 KCCP는 지난 2025년 4월 3일 아스콧 BGC 호텔에서 열린 30주년 기념식의 30번째 현장 편집(On-Site Edit) 영상을 상영했다. 영상에는 KCCP의 주요 성과, 파트너십, 30년간의 성장 여정이 담겨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에서 뜻깊은 순간 중 하나는 2009년 KCCP 장학생이었던 프레셔스 렐레스 갈로 박사(Dr. Precious Relles Galo)의 소감 발표였다. 현재 공군 군의관이자 산부인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그녀는 KCCP 장학금이 학업과 직업 경력에서 삶을 바꾸는 기회를 열어주었음을 나누며, 필리핀 장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준 한국상공회의소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별 공연으로는 오늘날 P-pop 씬에서 가장 주목받는 그룹 중 하나인 YGIG의 무대가 있었으며, SBTown의 남성 연습생 그룹과 함께 관객을 열광시키며 떠오르는 엔터테인먼트 인재들을 선보였다. 참석자들은 또한 재미있는 게임, 경품 추첨, 짧은 선물 증정 시간 등을 즐기며 화기애애한 연말 분위기를 만끽했다.

KCCP는 다음과 같은 행사 후원사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Alveo Land, 바탄 자유무역지대청(AFAB), Banco De Oro(BDO) 유니뱅크, Bellek and Company, Bench, Big Mama Korean Restaurant, DMCI Homes, Daejanggum Corporation, East West Bank, Haishen International, Hotel Okura Manila, 한국산업은행 마닐라 지점, Island Resort Club Services Inc., Kepco Philippines, Korean Air, Lockton Phils. Insurance & Reinsurance Brokers Inc., Pepsi Cola Products Philippines Inc., Savea Bay City Manila, Sunlight Air, Vivere Hotel and Resorts, Little Clarion Montessori School, Zoomanity Group, 그리고 WorldwideLink Trading Corporation.

2025 KCCP 크리스마스 파티는 연말 시즌을 축하함과 동시에 한국 비즈니스 커뮤니티와 필리핀 간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기념하며 화기애애하고 희망찬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다.

[Photo Highlights] 2025 KCCP Christmas Party



KCCP President Mr. Hyunchong Joseph Um giving his welcome remarks to start the event program



L-R: Mr. Jang Jae Jung, Atty. Fabian Delos Santos, Mr. Ill Kyoung Park, PEZA DDG Ms. Anidelle Joy Alguoso, H.E. Amb. Sang-hwa Lee, Mr. Hyunchong Um, Dr. Jikyeong Kang, Mr. Kwan Soo Lee and Mr. Ho Ik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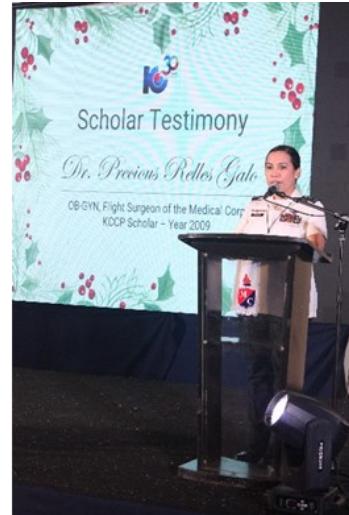
[Photo Highlights] 2025 KCCP Christmas Party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H.E. Amb. Sang-hwa Lee giving a
congratulatory message



PHILKOREC Chairman Atty.
Fabian K. Delos Santos giving a
congratulatory message



KCCP Former Scholar Dr.
Precious Relles Galo giving a
testimonial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Deputy
Director General Ms. Anidelle Joy Alguso giving
her message about KCCP locators in PEZA



KCCP Honorary President Mr. Kwan
Soo Lee led the Ceremonial Toasting



KCCP President Um, Amb. Lee and KCCP
Honorary President Mr. Jang with other KCCP
Guests



With KCCP Board of Directors and Korean Ambassador Sang-hwa Lee



KCCP President and Honorary Presidents with
Korean Amb. H.E. Sang-hwa Lee



With YGIG

A Special Thanks to the 2025 KCCP Christmas Party Event Sponsors



SOROK UNI FOUNDATION INC.
A Philippines Without Forgotten Neighbors™

10TH SOROK SHORT FILM FESTIVAL PHILIPPINES AWARDS NIGHT

Theme: Pilipinas, Person with Disability - Friendly Ka Ba?

CINEMA 4 - SM CITY MANILA

DECEMBER 3, 2025

2 pm - 4pm | Awards Night

4 pm - 8pm | Film Showing

Our Partners:

SM, 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 AWARENESS, BAGONG PILIPINAS

SCAN ME!